



在中国 延邊동포과학자 崔永鎮씨와 함께

## “在中国한국과학기술자協 結成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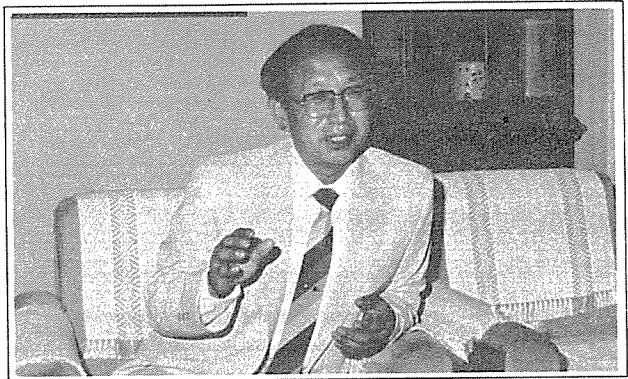
### 科總 방문후 合議 - 양국 활발한 교류 希望

『中國정부는 對外的으로 是 開放化정책, 對內的으로 是 經濟부흥정책이라는 슬 로건을 내걸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과학 기술개발정책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자 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읍 니다.』

大韓적십자사의 초청으로 52년만에 처음으로 故國땅 을 밟은 中國 吉林省 延邊 과학기술정보연구소 崔永鎮 소장(52세·부연구원)은 무 한한 잠재력을 지닌 中國은 이제 과학기술개발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각 종 과학기술진흥시책을 활 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 한다.

그 한예로 과학기술인들 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 및 연구단지의 과학기술자와 그렇지 못한 지역-즉 국경 변경지역에 있는 과학기술 자간의 교류와 中國내의 소 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등 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中國정부의 소수민족정



책가운데 「불꽃계획(聖火計劃)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는 작은 기술이라도 곳곳에 서 불꽃처럼 일으켜 경제발 전에 기여토록 하기위해 마 련된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에 대한 대표적인 과학기술 정책이지요』崔소장은 소수 민족 대다수가 살고있는 변 경지역의 과학기술인에 대 한 우대시책으로는 강사급 이상의 직함을 갖고 20년이 상 변경지역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해온 과학자에 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보수 를 지급하고 있으며, 內地에 서 변경지구의 과학기술분 야에 종사하게 되면 기술자 무료 및 특근수당은 물론

직업알선, 주택제공등의 혜 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밖에도 延邊지구의 경 제개발장려책으로 「延邊진 흥상」이라는 시상제도를 제 정,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공헌한 과학기술자에게 수 여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崔소장은 소수 민족 대부 분이 변경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國內人에 비해 아무래 도 文化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편이지만 中國거주 56개 소수민족가운데 韓民 族의 생활수준은 비교적 높 은 편이라고 전한다.

延邊조선족자치주에는 초· 중·고교는 물론 국립연변 대학(綜合)·국립연변의학

원(醫·藥學)·연변농학원(農學)등 3개 대학과 대학 수준의 연변교육학원이 1개 있으며 吉林조선족신문사, 延邊방송국, 延邊교육출판사 등이 있다고.

신문으로는 「吉林日報」와 「延邊日報」가 韓國語로 발행되고 있으며 「天池」「延邊婦女」「青年生活」등의 잡지와 함께 「科學技術報」라는 타브로이드판의 週報가 발간되고 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延邊 과학기술정보 연구소는 國內外 과학기술연구 및 정보수집, 조사·자료제공등을 목적으로 지난 78년도에 설립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崔소장은 이 연구소는 延邊지역의 과학기술개발연구는 물론 시장조사와 함께 경제방면 연구까지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38명 가운데 中國人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韓國人이라고 밝힌다.

이 연구소에서는 「延邊과학기술」「朝·日 과학기술정보」「南朝鮮과학경제연구동태」등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에는 한국에서 발간된 2권짜리 「韓國産業」을 中國語로 번역, 관계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그리고 한국관계서적은 中國圖書進出口公司를 통해 입수되고 있는데 지난 85년도에는 1백여종을 구독했으나 지금은 外貨사정등의 이유로 科總에서 발간되는 「과학과 기술」등 23종만 구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中國이 정식 國交를 맺고 있지 않은 관계로 각종 자료교환 및 정보교환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아 한국관계연구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崔소장은 한국의 과학기술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中國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용역사업으로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5명으로 한국 과학기술경제 연구팀을 구성, 3개년계획으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자료빈곤으로 인해 심도있는 연구가 어려워 이번 방문길에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 갈 작정이라고 밝힌다.

『한국에 오기전에도 「科總」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과학기술 관련학회 및 단체의 연합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科總을 통해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교환은 물론 과학기술자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

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崔소장은 中國·朝鮮人과학경제추진회 결성을 위한 對政府건의와 함께 中國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자들을 모아 在中國한국과학기술자협회(가칭)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科總」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崔소장은 吉林省 長春市에 소재한 「吉林農業大學」에서 畜産學을 전공했으며 현재 吉林省정보학회 상무이사회 이사직도 맡고 있다.

崔소장의 이번 고국방문은 中國에서 함께 살고있는 장모(72세)와 妻祖母(100세)와의 43년만의 상봉을 위한 것으로 부인과 함께 9월말 출국예정으로 8월17일 입국했다.

『생후 처음으로 故國땅을 밟고보니 무척 감개무량하군요. 말로만 듣던 고국의 비약적인 경제·사회 발전상 뿐만아니라 차내에서 老弱者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랄지 한국인의 美德이 매우 인상에 남았습니다』崔소장은 우리 모두의 소원인 南北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과학기술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韓·中 간의 활발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記>